

포토뉴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간디의 나라 인도, 쿠키족은 폭력에 시달려



▲ 인도 간디 박물관의 동상. 제공: WMM

'인도의 아버지' 라고 여겨지는 마하트마 간디는 구자라트어로 바푸(아버지의 사랑)라고 불린다. 인도는 간디의 생일

인 10월 2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 비폭력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의 기독교 소수 부족인 쿠키(Kuki)

족은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조직적 공격으로 성도들의 집 4000여 채가 불타고 최소 150명이 사망, 난민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군이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힌두 민족주의 지방 정부는 폭력을 멈추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종족과 종교를 이유로 박해와 살인을 가하면서도 분노와 탐심에 혈안이 되어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들의 공격으로 난민이 된 3만 명의 쿠키족이 주의 사랑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5, 37)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전 세계 인구 60% SNS 사용... 하루 평균 2시간 26분 소비

전 세계 인구의 60.6%에 해당하는 약 48억 8000만 명(2023년 7월 기준)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케팅·컨설팅 기업 '케피오스(Kepios)'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SNS 사용자 수가 3.7% 증가한 수치다. SNS를 사용하는 데 하루 평균 2시간 26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바라보며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허망한 것을 찾으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미얀마 법원, 온라인 학교 운영하던 교사 14명 체포... 20년형 선고

미얀마 군사정권 산하 법원이 민주 세력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와 협력해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던 '이 쉐 진 민' 교사에게 대테러법을 적용해 20년형을 선고하고 같이 일하던 교사 14명도 체포했다고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지난달 21일 전했다. 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군정 산하 교육 시스템을 보이콧하는 교사와 배움에 굶주린 학생들이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을 압수당해 중지된 상태다.

주님, 군사정권 통치 아래서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이 땅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미얀마에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다음세대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교육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9월 10일 '생명보듬주일'로 선포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2023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제11회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을 9월 10일로 선포했다. 라이프호프 이사장 임용택 목사는 "자살도 생명질서가 깨어진 결과 이기에 생명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교회들이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예배 설교문'과 '청소년 교육 교재', '자살자 가족을 위한 위로예식서' 등 생명보듬주일 목회자료를 만들어 공유했다.

주님,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깨워 생명질서를 회복하자고 외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자살이 그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GNPNEWS]

아프간, 불발탄과 지뢰에 어린이 피해 심각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십 년간의 전투로 발생한 불발탄(UXO)에 의해 어린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의 인권정보 사이트인 릴리프웹이 최근 전했다.

2021년 8월 이후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불발탄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뢰를 의도치 않게 밟거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불발탄을 주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뢰 폭발 및 폭발 잔재물과 관련된 541건의 사고로 64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불발탄 관련 사고로 인한 전체 민간인 사상자 수(1092명)의 60%에 육박하는 수치다.

ICRC의 탄약 처리 전문가인 모하마드 나세르 하이다리는 민간인, 특히 어린이가 지뢰 및 불발탄 관련 사고의 주요 피해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군사 기지로 사용되었거나 무력 분쟁이 발생했던 지역은 버려지거나 불발된 무기로 인해 오염됐다."며 "이제 전



▲ 아프간 아이들에게 지뢰의 종류를 가르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Al Jazeera English 캡처

투가 크게 줄어들면서 무력 분쟁 당시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불발탄을 발견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다리는 인식되지 않은 폭발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ICRC는 지뢰와 불발탄의 위험과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 교육, 사고 데이터 수집, 교육 및 정보 자료 배포, 피해 가족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독자적으로 또는 아프간 적신월사(Red Crescent Society)와 협력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 교체된 후 많은 기부 국가와 단체가 자금 지원을 철회했다. 자원과 자금의 급격한 감소는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려는 노력에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불발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 사회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8월 7일 ~ 2023년 8월 26일

8월 7일 ~ 8월 12일 8.7~9(13~17시) ▶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 010-3191-8622, 8.7~11(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 010-2735-4869, 8.7~12(10~20시) ▶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 010-7754-1726, 8.8(10~12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 010-5006-5529, 8.8~10(14~16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 010-4715-3727, 8.9(11~15시) ▶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 010-2664-6936, 8.10(20~22시) ▶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 010-4828-3408, 그 외 10교회 진행중.

8월 14일 ~ 8월 19일 8.14~18(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 010-2735-4869, 8.15(10~12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 010-5006-5529, 8.15, 17~19(20~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8.17(10~20시) ▶ 미국 샌프란시스코 / 조이플교회(최**), 8.17(20~22시) ▶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 010-4828-3408, 8.18(10~17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8.18(11~15시) ▶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 010-2664-6936, 그 외 6교회 진행중.

8월 21일 ~ 8월 26일 ▶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 010-4734-8567, 8.21~25(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 010-2735-4869, 8.22, 24~26(20~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8.23~25(10~17시) ▶ 강원 속초 / 동명교회(최**) 010-8373-1273, 8.24(18시)~26(18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이**) 010-3684-6673, 8.25(10~17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8.25(14~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 010-7129-7224, 그 외 10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선교한국은 멈출 수 없다”

5년 만에 열리는 2023 선교한국 8/7~11, 한동대에서

최읍 선교한국 사무총장, “한국 선교사의 80%, 선교한국 영향받았다”
“4박 5일 통해 45년간 달릴 복음의 뒷바퀴와 선교의 앞바퀴 장착하길”

한국선교 100년 역사에 20대 선교사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교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수치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아니라, 근대 역사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목하게 하는 집회, 2023 선교한국이 눈앞에 다가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제18회 선교한국대회가 8월 7~11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포항 한동대와 기쁨의교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198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35년간 청년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선교의 사명을 일깨운 선교한국대회는 무려 6만 4000여 명이 참석해 그중 3만 6000여 명이 선교에 헌신하는 기록을 남겼다. 선교한국에 따르면, 현재 5대양 6대륙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교사의 80%가 직간접적으로 선교한국의 영향을 받았다.

최읍 선교한국 사무총장은 “어떤 분들은 4박 5일짜리 집회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4박 5일을 통해 45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의 뒷바퀴와 선교의 앞바퀴를 인생에 장착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비용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 사무총장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이 복음의 사건이라면, 성자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선교의 사명”이라며 “복음의 은혜라는 동력으로 뒷바퀴가 움직이면 선교적 참여라는 앞바퀴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

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라고 부연설명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15년의 선교사역을 하다 선교한국 사무총장으로 1년여 전에 귀국한 최 사무총장은 “우리 인생은 복음의 은혜를 통해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설계됐다.”며 “많은 청년들이 이번 대회에 등록하고 참석해 복음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선교적 제자도로 승화되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것”을 권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교한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는 강사들을 통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전 성경강해를 맡을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담임)는 아프리카 브룬디 선교사 출신으로, 교민 전체가 선교사 세 가정이 전부이며 대사관도 없는 곳에서 사역하다 귀국했다. 문 목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고 북한보다 가난한 세계 최빈국인 이 나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계획이다.

월요일 저녁에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나눌 윤태호 목사는 JDM(예수제자훈련)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잠든 청년들을 깨워 선교헌신자로 동원한다.

화요일 저녁, 탁월한 성경강해와 적용을 통한 인격적인 울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는 대학에서 정치외교와 역사를 전공한 분담계 우리가 속한 정황 속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삶의 의미를 조목조목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일 저녁을 맡은 박현주 선교사(WEC 부대표)는 10살에 선교에 헌신하여 20대에 방학마다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지를 경험하며 순종해온 삶을 통해 진정성에 목말라 있는 청중들에게 깊은 청량감

을 선사할 예정이다.

목요일 저녁은 튀르키예(옛 터키)에서 3번의 구속과 3번의 재판을 통해 복음 전파가 무죄임을 이슬람 국가 한복판에서 증명한 김요한 선교사(전 GMP 대표, 현 돌로스네트웍 대표)가 말씀을 전한다. 구속 과정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기까지 구타를 당하기도 한 그는 에수를 따르는 삶이 결코 형이상적 철학이나 취향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에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삶을 고백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철호 선교사(전 선교한국 대표)는 한평생 선교동원과 훈련에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한국대회 후에 어떻게 타문화 선교를 준비하고 또한 선교적 삶을 일상과 선교지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안내와 도전을 던질 전망이다.

2023 선교한국대회 주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 2018 선교한국대회 현장. 출처: 유튜브 채널 선교한국

또한 이사야 61장의 비전이 다음 세대와 열방에 성취되는 것을 위해 결성된 아이자야씩스티원이 예배팀을 맡아, 찬양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거룩한 영적 질서가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낮 시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그리스도

인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선교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소개된다. 전방개척 선교,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라는 세 축의 선교현장이 토크 프로그램, 선택식 강의, 부스박람회 등을 통해 나눠지게 된다.

[GNPNEWS]



mini interview

“준비된 영혼에게 선교의 불씨 일으킬 것”



최읍 선교한국 사무총장

이번 선교한국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최읍 사무총장을 만나 현재 진행 과정 등과 기도제목을 들었다.

- 왜 선교한국대회를 수도권에서만 포항에서 개최하나?

“예전부터 지방교회와 청년들이 선교의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특히 포항을 생각한 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동대학교와 협력,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와 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소를 섭외할 때, 코로나 이슈 등으로 장소를

허락한 곳이 한동대학교였다. 왕복 교통비가 부담이라면 신청자에 한해 지역별로 대절 버스를 운행, 저렴한 가격에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 요즘 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100년 역사의 한국선교의 주역이었던 외국 선교사들의 다수가 10대에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을 결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지금 세속적인 문화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돌아볼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믿는다. 교통량이 적다고 사거리 신호등을 줄이지 않듯, 선교한국은 허락된 시기에 신실하게 작동하기 위해 이때 선교대회를 열어, 준비된 영혼들에게 선교의 불씨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제 개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나?

“물론이다. 대환영이다. 참가 신청은 선교한국 홈페이지(www.missionkorea.org)에

서 할 수 있다. 현재 3차 등록(7/5~8/1)기간이다. 대회장에서 신청할 때보다 할인이 된다. 개인 참석뿐 아니라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대체하는 선교수련회로도 환영한다.”

- 기도제목을 알려달라.

“이제 본 대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다. 현재 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영역도 기도가 필요하다.(참고로 다른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열렸거나 내년에 열리는 대규모 선교대회로 후원교회의 부담이 분산되면서 선교한국대회에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여담으로 선교한국은 이름이 너무 좋아 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그렇지 않은가. 선교한국이 망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이 대회를 통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하고 일깨움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청년과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주시길 바란다.” [GNPNEWS]



▲ 선교한국대회 중 선교단체 박람회. 출처: 선교한국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환자를 섬기는 황선영 집사 (동명교회)

• 1면에 이어

병원에서의 일화다. 황 집사에 게만 치료를 받기 원하는 한 환자가 있었다. 하루는 황 집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다. 환자는 이렇게 된 것이 황 집사의 실수인 것처럼 덮어 씌우고 이송비와 합의금을 요구했다. 병원은 환자의 요구를 들어줬다. 황 집사는 간호사로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돈을 해줬으니 그 환자가 다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아니,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환자가 돌아왔다. 마침 황 집사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웃리치도 다녀온 상태였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자 '다시 하나님 얘기하면 가만히 안있겠다.'고 화를 냈다.

며칠 후 그 환자의 예약일. 환자가 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대답을 들었다. 주님은 황 집사에게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마음을 주셨다. 보호자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찾아가야 하나고 주님께 물었다. 주님의 대답은 같았다. '만나보라.' 황 집사는 환자와의 잠깐의 면회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은 계속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셨다. 황 집사는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환자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나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날 새벽, 그 환자가 임종했다. 황 집사는 그분의 장례식장에 갔다. 불교식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다. 황 집사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주님이 이 영혼 받아주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 집사는 주님께 연신 감사를 올려드렸다.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 환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간호사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병원에

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들려주세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깨지고 나니까 환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제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환자가 있었어요. 저를 편하게 여기면서도 모진 말을 쏟아내시는 할머니셨는데, 돌아보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주님이 그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로하라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무연고 어르신인데, 그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장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할수록 그분의 장례도 우리 교회에서 감당했으면



▲ 신장 투석 환자를 돌보는 황선영 집사(우측) / 황선영 집사(맨 좌측)와 느헤미야2기도를 함께 한 교인들. 제공: 황선영

하는 마음이 컸어요. 교회 식구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더니 교회 지체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5~6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작은 풀뿌리 교회일 뿐인데요." - 환자의 장례까지 섬기신다고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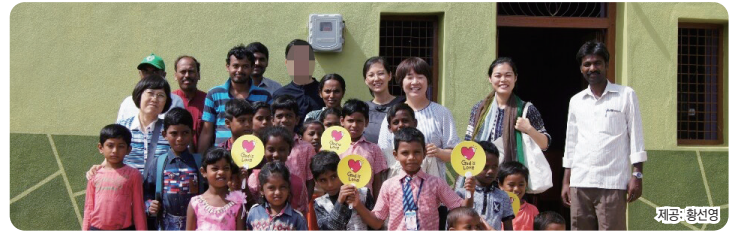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놀라긴 해요. 최근에는 이 할머니를 찾아뵙고 왔어요. 이분이 투석하러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몸이 여뵈신지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가서 보니 할머니가 말을 못해도 응급상

황이 생기면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주위 사회복지 센터와 연계해서 CCTV를 설치해 드리고 왔죠. 병원에 돌아와 이야기를 하니 '진짜 갔다 왔어? 이걸 해준다고? 아무 대가 없이 이걸 해준다고요?'라고 몇 번을 확인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에요. 한번은 빈혈 수치가 3으로 떨어진 사람을 제 차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적이 있어요. 빈혈 수치가 10이 넘어야 정상인데 3이 나왔다는 건 거의 사망 직전이거든요. 환자를 이송하면서 '예수님 믿어본 적 있냐.'고 묻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어요. 주위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한다고?'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그분은 빈혈 수치가 13으로 회복됐어요. 저보다

도 높아졌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남편이 일하는 카센터 건물주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건물주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병실에 찾아갔어요. 보통은 음료수 같은 걸 사 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가지고 갈 게 김치밖에 없었어요.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잘 못먹어서 많이 말랐더군요. 그분이 제가 가져간 김치를 드시더니 이 김치가 북한식 맛이 난다면서, 입맛이 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주님이 그분에게 계속 찾아가갈 마음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전할 거면 오지 말라더군요. 어느 날 갔더니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데도 제가 가니까 고개를 돌렸어요. '주님, 저 그분에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도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셨죠. 아내 분은 저에게 왜 자꾸 오냐고 묻더군요. 저는 하나님 전하러 오는 거지 다



제공: 황선영

른 건 없다고 했어요. 돌아 나오는데 건물주 아들이 가게 월세 깎아달라고 오는 거 아니냐고 엄마에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르니까. 어느 날 갔는데 그분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날은 고개를 안들리더군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되던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거렸어요.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새벽에 임종하셨어요. 다음 날 퇴근하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역시 불교식으로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도 상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오해도 받지만...

-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간호사가 되셨어요?



▲ 신장 투석 환자를 돌보는 황선영 집사(우측) / 황선영 집사(맨 좌측)와 느헤미야2기도를 함께 한 교인들. 제공: 황선영

"처음 교회에 간 건 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잠깐 보험설계사를 하던 때였어요. 간호사 11년차였는데, 뻘한 간호사 월급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보험설계사를 택했어요. 그러나 막상 두려운 마음에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간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도 병원에 비치돼 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힘들면 새벽기도 가서 앉아있곤 했죠. 막상 교회에 나가보니 교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너무 컸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기쁨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하면서는 쫓박 망했는데, 그 무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의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을 통과하게 됐어요."

- 그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풀어 설명해주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제하던 사람과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당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남편이 공부를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시댁에서는 우리 아들 앞길 막았다며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그래도 며느리 잘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시댁에 거의 매여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여러 일들을 통해 어려움이 많았죠. 남편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전부였어요. 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살았어요. 보험설계사를 한 것도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헤어지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려웠죠. 제가 43살에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게 허락을 잘 해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복음학교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더군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군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병원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직원들이 그만 두면서 시작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때 마음 안에 전쟁이 치열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지 나온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은 그동안 힘들었던 남편 문제, 나의 경력, 부모님과의 어려움들에 대한 모든 것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었어요. 먼저는 죄가 여러 번 드러나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통하는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이더군요. 평생 애착하던 남편이 마음에서 분리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황선영은 없다. 이제는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삶만 있다.'고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나에게 찾아온 복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전히 나를 포장하고 싶더군요. 오래된 수간호사라는 위엄도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것들을 오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복음을 나누고 나니까 더 감사했어요.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면 뭐하겠어요. 병원에서 지나온 내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나니 교회를 다닌 적 없는 후배들도 작은 예수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공: 황선영



선교 통신

내게 세례 받은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갔다



최근 한 사건을 통해 내 마음은 다시 주님 앞에 세워졌다. 지난 3월 말, 고아공동체인 '휘장안에(히 6:19) 공동체' 형제 중 '퍼은'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때는 수술이 잘 되어 회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호전되던 퍼은은 한 달 전에 천국으로 갔다. 사망원인은 신장병 4기였다. 몸에 깨끗한 피가 부족하고, 투석이 시급해진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국 의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 안에 있었던 병이 발견된 만성인 경우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엄마도, 누나도 같은 병으로 일찍 사망했다. 그래서 고아가 된 것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은 시간이 새벽 한 시경이었다. 운구차를 불러 묘지로 가려고 했지만, 새벽이라 차도 없고, 그러다 보

니 운송비를 너무 많이 불렀다. 퍼은의 친형은 고향까지 시신을 옮겨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의 차에 시신을 놓고, 함께 섬기고 있는 현지인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를 데리고 퍼은의 고향으로 출발했다. 쉽지 않았다. 4시간 반 정도를 달려 도착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울며,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퍼은이 남긴 말이 기억난다. 나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아짠(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아짠, 나는 아짠하고 있을 때가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어요!" 그랬던 아이를 직접 차에 태워서, 고향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 그곳에 있던 책임자도 한 마디 했다. "퍼은이 한 기독교대에 입학



▲ L국의 아이들. © 복음기도신문

한 이후, 완전 변했어.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심히 섬겼어." 퍼은은 세례를 받고, 고향에 가서 크리스마스 기도 행사를 섬겼던 것이다.

이제 한 달이 지났다. 이제야 감

정을 추슬렀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고아, 퍼은을 불러와서 함께 했던 날들, 선생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했던 날, 복음

으로 감격했던 날들, 평생에 선생님과 함께 한 날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했던 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차 트렁크에 실어서 고향에 가던 날. 이렇게 그날, 그날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먹먹한 내 가슴에 남은 울림이 있다. "주님, 저는 이 땅에 남아 있네요." 이 울림은 나의 이 고백을 이끌어 내었다. "저 힘에 부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줬던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남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휘장안에 공동체' 아이들과 현지 짚사냥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NPNEWS]

L국=뵤야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교실 붕괴를 가져온 학생인권조례, 네오마르크스 사상 극복해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68운동 사상(네오(新)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로 여겨지는 한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교실 붕괴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여겨지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주지하듯 그동안 전교조 교육감과 좌익 정권은 항상 '학생인권향상'만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이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를 폭행해도 괜찮은 지형으로 형성됐으며, 교육적 조건 형성을 위한 교사의 초보적 권력과 권한 조차 약화됐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해체주의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들은, '명령' 하나로 학생을 전학 보낼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교사에게 이런 정도의 권력이 없으면 교실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더욱이 이같은 한국의 학교 현실에 불을 지른 법안은 아동학대법이다.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오늘 한국 교육계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늘 친절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로 전락했다. 오늘날 이런 감정노



▲ 서울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교권침해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교실 붕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동자금 학교 교사들은 늘 친절함 카운셀러로서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하고 주장한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미 알려진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거부하며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만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여기고 있는 네오마르크스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지성인을 조직화하여 서구 문명을 타락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정신적 토대인 기독교 해체를 강력하게 열망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시한 인물은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로, 그는 문화적 세력으로 기독교

는 적(敵)이며, 혁명의 방법으로 문화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조용한 혁명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①지속적인 사회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②학교와 선생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③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④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⑤교회를 해체한다. ⑥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⑦인종 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⑧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⑨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다. ⑩언론을 조종하고 대중 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⑪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이러한 혁명을 위해 그람시는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및 교회와 같은 권력을 이용해 '조용

한 혁명'을 통해 혁명의 길을 막고 있는 기독교를 제압해 서구사회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그람시의 진지론(陣地論)으로 불리는 혁명 전략이다.

지난 정부에서 좌익 성향의 학생운동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기용된 이후 드러난 수많은 정책들이 이 같은 그람시의 진지론에 기초한 조용한 혁명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네오마르크스주의는 기존 국가 질서를 허물어, 성공한 국가전략을 부수고 허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정책, 법률, 교육 등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재설계되고, 재교육이 이뤄진 것이다. 그 결과, 모든 분야의 개혁은 비효율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비윤리적이었던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오히려 특별한 것으로 교육하는 환경을 낳았다. 각종 인권교육은 자기 이익만 챙기도록 프로그래밍한다. 질서와 권위의 붕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 질서와 십자가 복음의 성경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진리를 현실의 삶에 적용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주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에게 유다의 죄가 역사상 가장 크기 때문에 유례없이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두고두고 일종의 표적이 될 것이었다. 지금도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외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묻고 싶다. 당신의 교회의 목사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인가? TV를 보느라고 밤을 지새우는 것 말고 베옷을 입고 지새우는가? 그는 이웃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지새우는가? 그는 마귀가 그의 도시와 이 어두운 세대를 지배하는 것을 보고 밤을 새며 탄식하고 울부짖는가? 자기의 신학적 지식이 종이 호랑이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베옷을 입는가? 신학이라는 메뉴판을 준비했지만 막상 식사를 차려낼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엎드리는가? 요엘은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거듭 외쳤다. [GNPNEWS]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레오나드 레이븐힐)'에서 발췌



에콰도르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셨다

미국에서 다음세대 아이들을 섬기며 함께 아웃리치를 가기 전, 출발하는 그날까지도 너무 가기가 싫었다. 메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에콰도르로 떠나게 되었다. 내가 본 에콰도르의 현실은 매우 슬펐고, 너무 비참해 보였다. 아직 십대의 나이에 아이를 키우고 사는 어린 여자 아이들이 과반수이고 빈부의 격차는 컸다. 나라의 지도자도 제대로 없으며 조금의 치료나 약이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 여력도 되지 않아 죽음의 기로 앞에 놓인 50~60대 할머니들을 보며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

어린 나이 때부터 마약에 노출되어 거리를 전전하는 많은 사람들. 기사로, 기도제목으로만 보던 그 내용이 눈앞에 다가오니 가슴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정말 하찮아 보여 괴로웠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측은지심이 아니라, 그런 절망 속에서 불빛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처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고서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는 마음이 들었다. 하루하루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말은 통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을 마주쳐 웃으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지만, 분명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아끼시며 지키고 계심을 말이다.

선교사님 센터 아이들과 성경공부를 할 때였다. 4~5시간을 쉬지도 않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치지도, 불평을 하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배우고 노는 시간을 보며 “아, 하나님 진짜 애들 보면서 행복하시겠다. 애들 때문에라도 에콰도르 안버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은 나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유독 잠이 오지 않아 그냥 매트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한 너의 말이 맞다. 그러



일러스트=김영하

서 나는 오늘 너 때문에도 너무 기쁘다.” 그날 모든 메말라 있던 나의 영혼이 다시 불타게 됐다. 정말 작은 음성이었다. 그 작은 불씨가 나를 다시 탈 수 있게 해주었다. 원래 장작은 마르면 마를수록 잘 타고 작은 불씨에도 잘 타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부터 나의 모든 신경은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지,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더욱 주목하고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했다. 페인트 작업도, 전도도, 마을 방문도, 설

거지 뒷정리도, 잠도, 말씀기도도, 선교사님과의 교제도, 팀원들과의 대화들도 너무 행복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제목처럼 나를 다시 만나 주셨고, 이 마른 마음에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 주셨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이 주님에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주셨다. 이번 에콰도르 아웃리치는 내 인생에서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일하여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조건웅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인권 증진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이 효과적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 내 인권 개선이 핵·미사일 등 안보 문제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선 대중문화 등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최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

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은 한국이 이룩한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대중문화,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등이 북한 내부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보 전달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토론회에

서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을 두려워해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자생적인 저항 세력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근 양강도 국경경비대 군인이 문건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부대에서도 군인이 마약을 복용하고 강도질을 하는 등 국경경비대의 일탈이 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20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월 중순 국경경비대 25여명 소속 군인이 중대장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데 대한 반발로 중대장 문건을 가지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6월 말 해산에 있는 국경경비대의 한 군인이 빙두(필로폰)를 사용하다 현장 체포됐다.”며

“이 군인은 밀수를 눈감아 주고 받은 돈으로 빙두를 구입했고, 빙두를 구하기 위해 밤에 길가는 여성의 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국경경비대를 일반 인민군 부대

만큼, 외부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대응 기조를 감안한 세밀한 정보 유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GNPNEWS]

와 달리 전투력도 없고 규율도 엉망인 오합지졸 집단으로 여긴다.”며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밀수꾼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들과 결탁해 돈을 버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NPNEWS]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신경증적 우울증, 십자가 복음이 결론돼야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7)

우울증을 크게 나누면 정신병적 우울증과 신경증적 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병적 우울증은 특별한 이유나 선행 사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한 현상이며, 증상은 일상생활을 거의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다. 산후 우울증도 여기에 해당된다. 갓난아기가 옆에서 울어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몇 달간 씻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 환각이나 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주 증상은 모든 것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을 잃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린다. 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잔다. 이럴 때는 약물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신경증적 우울증은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 사회적 원인에 의해 생기며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환각이나 망상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주 증상은 상황에 따라 우울한 기분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분하고 억울하고 걱정되고 허무하고 쉽게 화가 나고 섭섭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정신병적 우울증은 생물학적인 증상을, 신경증적 우울증은 감정적인 것을 많이 느낀다. 신경증적 우울증의 치료는 병든 옛 자아의 문제가 처리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신병적 우울증을 겪는 내성적인 성격의 공무원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자. 특별한 스트레스나 이벤트 없이 두 달 전부터 업무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우울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두 달간 5kg 정도 빠졌다. 직장에 나가는 게 극도로 힘들게 느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신경이 쓰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어느 날은 멍한 표정으로 모두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며 여기며 나만 사라지면 된다면서 혼잣말을 반복하는 모습도 보인다. 울면서 막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며칠간 양치를 하지 않고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모습을 보이며 나중에는 내가 소변을 봐서 병균을 퍼뜨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망상적인 얘기도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정신병적 우울증에 해당된다. <계속> [GNPNEWS]

北 양강도 국경경비대, 도둑질에 마약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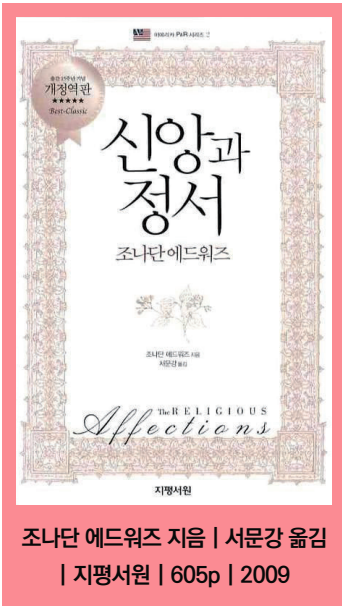
“이 군인은 밀수를 눈감아 주고 받은 돈으로 빙두를 구입했고, 빙두를 구하기 위해 밤에 길가는 여성의 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국경경비대를 일반 인민군 부대

최근 양강도 국경경비대 군인이 문건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부대에서도 군인이 마약을 복용하고 강도질을 하는 등 국경경비대의 일탈이 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20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행함과 실천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과 정서라는 600페이지에 달하는 장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지, 정, 의를 통해 진실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 성실하고도 섬세하게 풀어 설명해 준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삶을 시작한 성도는 맹목적으로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무언가

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진짜 지, 정, 의를 깨워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 교제를 한다는 신비로움은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여러 정서와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그리고 그 정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러 본 성도들이 겪게 될 법한 상황과 감정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고조되어 떠오른 찬송가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갑작스러운 감정변화에 따른 눈물과 이어진 회개, 그 후에 다시 고조된 감정 같은 것들 말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단순히 성경말씀이 떠오른 것만으로는 그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기도 중 뜨거운 마음이 들고 말씀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하

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은 말씀의 순전성과 완전성을 마귀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된 정서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나 떠올랐다 하는 이 지점에서 얼마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잘못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반드시 삶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 받은 말씀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로 확인되어야 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단순히 행위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정서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 없다. 드러난 순종의 열매는 단순히 몸이 움직인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선한 명령을 내리는 그분을 향한 영혼의 작용이어야 한다. 책에 서술된 온갖 영적으로 보이는 정서들과 체험들이 있을지라도 그 명령을 내리는 의지의 행위와 몸의 활동이 서로 다

“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넘어
반드시
삶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드러난다
”

르다면 결코 참된 은혜에 따른 신앙적 정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참된 은혜에 따른 신앙적 정서와 거짓된 은혜에 따른 신앙적 정서를 분별할 수 있는 일은 시련을 통과하는 일이다. 순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금의 가치와 보배로움이 드러나듯이 그의 행위가 은혜로운 영혼의 작용에 따른 믿음의 행위였다면 결국 시련을 통해 진실성과 말할 수 없는 덕행의 가치만이 드러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참된 은혜나 옳은 정서들을 알아 보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시련은 시험받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 참된 은혜와 바른 양심의 터 위에서 있다는 증거와 증표가 되는 것이다. 은혜로운 정서가 고양될수록 신령한 성취를 향한 영적 갈망은 커지고 좋은 신앙고백과 좋은 열매가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고작 창세기 2장을 넘기지 못하고 악이 생명에 침투하여 우리의 모든 정서를 망가뜨렸지만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반드시 올바른 정서를 지닌 열매 맺는 신령한 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카툰 | 안전한 주님 품



클.그림 | 이하민 선교사 (공고민주공화국)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7. 5 ~ 7. 2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경선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원숙 김향희 김형숙 김혜신 박성규 박신희 반혜정 신혜경 우종찬 유제윤 윤미자 이삼연 이은주 이장원 이종훈 이주선 장근해 정금자 정옥영 정호진 조명숙 조은일 조은희 지혜련 최근희 최임주 하은숙 홍고집 황선영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강화은혜요양원장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나죽교예수시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쉼 시흥교회 열매교회 참종앗더라교회 풀뿌리산곡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